

장성군, 어르신 효도권 만족도 '쑥쑥'

23일까지 11개 읍면행정복지센터·88개 협약 업소 현장 점검 이용자 의견수렴 내용·업소 관계자 애로사항 내년도 사업 반영

장성군이 군의 대표적인 실버복지 정책인 '장성 효도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효도권을 배부하는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효도권 협약 업소 88개소에 대해 현장 지도 점검을 진행한다. 효도권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목욕과

이·미용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도권(지원단가 5000원)을 매달 1인당 3장씩 지급하는 장성의 대표적인 실버복지 정책으로 군은 올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12만7244명에게 총 44만 6000여장의 효도권을 발행했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소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을 정

취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각 읍면의 효도권 배부현황과 반납 처리 현황, 사업비 집행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지난 7월부터 지원단가가 인상된 효도권이 이용자와 협약 업소 관계자에게 제대로 인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특히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연말에 효도권 집중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찾아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효도권을 부정확하게 이용한 이용자나 업소가 적발될 경우 업소는

경고처분을 하고 주민에게는 효도권을 회수하고 다음 분기에는 지급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효도권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복지서비스 중 하나"라며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기 전에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해 혹시 모를 부정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효도권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화순국화향연' 관람객 52만명 즐겼다

농·특산물 판매액도 5억 돌파

지난달 26일 개막됐던 '2018 화순 국화향연' <사진> 관람객이 52만여명을 기록하고 17일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김삿갓이 머문 국화동산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2018 화순국화향연은 5.2ha의 화순 남산공원 일원에서 전개됐다. 수도권·광주,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단체 관광객들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북새통을 이뤘고, 20~30대 젊은층과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어나 화순군만의 지역축제를 뛰어 넘어 전국대표축제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엿보게 했다. 관람객 집계를 위해 지난해에는 직원 이 축제장 입구에서 직접 카운팅을 했으나 올해는 축제장 5군데에서 무인계측기를 이용해 카운팅을 함으로써 관광객 집계 신뢰성을 더해줬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국화향연은 지난

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은 먹거리 부족을 보완하고 관광객을 배려한 공간구성과 즐길거리를 중점으로 축제를 준비했다. 김삿갓 방랑체험과 포토엽서 편지쓰기, 국화꽃 심기, 버블체험 등은 어린이들과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 축제 전반적인 구성이 짜임새 있게 잘만들었다는 평을 들었다. 또 농·특산물 판매장, 음식코너 등 판매부스에서는 5억여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등 지역 음식점에 관광객이 몰리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었으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거듭났다. 구중곤 화순군수는 "내년에는 국화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더욱 다채로운 축제를 준비해 전국 최고의 국화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남산공원 일원에 국화로 조성되어 있는 국화동산은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11월 말까지 개방을 할 계획이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사찰 처마밑 꽃감 '주렁주렁'

장성 백양사 사찰 처마 밑에서 꽃감이 익어가고 있다. 장성군은 1970년대까지도 꽃감시(市)가 열릴 정도로 유명한 '꽃감의 고장'이다. 백양사가 자리한 북하면과 북이면을 중심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대봉 꽃감'을 연간 50억원 넘게 생산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 은행나무 "베어야 한다" 83% 압도적 찬성

군, 가로수 손질 여부 설문
"보존해야" 16% 불과

경관자산이라는 보호론과 불편요인이라는 폐기론의 갈림길에서 선 은행나무 길을 두고 인터넷 설문 조사한 결과 '베어야 한다' 의견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14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약 2주간 시행한 성산마을 은행나무길 관리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 598명이 참여했다. 가로수 손질 여부를 두고 502명(83%)이 '제거'를, 96명(16%)은 '보존'을 선택했다. 건물·담장·보도블록 균열 등 물리적 피해(75%), 가로등 불빛 및 상가간판 가림(18%), 은행나무 가지치기 등 관리비 소모(6%) 등 때문에 은행나무를 베어야 한다고 답했다.

가로수가 있던 자리의 활용 계획으로는 화단 및 화분 설치(70%), 아무것도 하지 않음(18%), 키 작은 관목 식재(10%) 등을 제시했다. 은행나무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로는 50년 동안 가꾼 가치(47%), 아름다운 경관 제공(38%), 미세먼지 및 폭염 피해 저감(16%) 등을 꼽았다. 설문 참여자를 거주지로 구분하면 은행나무길 주변에 사는 장성을 성산·수산리 주민이 절반 정도인 48%(290명)를 차지했다. 장성읍민(27%·163명), 장성군민(17%·102명), 타 지역민(7%·43) 등이 뒤를 이었다. 성산마을은 도로 양쪽을 따라 늘어선 수령 50년 이상 은행나무 130여 그루로 가을마다 황금빛으로 물든다. 하지만 주위로 뻗어 나간 나무뿌리 탓에 상가건물, 담장, 보도블록에 균열이 생겨났고 간판을 가려 불편하다는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담양군, 복지사각 없애 주민 '삶의 질' 향상

긴급복지 필요한 350가구 2억5000만원 지원

담양군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행복도시 담양'을 위한 주민복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4일 담양군에 따르면 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350가구에 2억5000만원을 지원, 복지사각지대를 좁혀나가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또는 저소득자의 실직, 이혼, 질병, 구급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75%이

하 가구(1인기준 125만4000원), 농어촌 재산기준(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이정희 주민행복과장은 "연말까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담양군복지재단 등 민간기관과 연계, 위기에 놓인 세대 등 복지사각지대를 좁혀나갈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는 때는 군청 주민행복(061-380-3304)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연락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국내외 백신 전문가 화순으로 모인다

'화순국제백신포럼' 15~16일 개최...미국 전문가 8명 초청

국내외 백신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2018 화순국제백신포럼'이 15~16일 백신산업특구인 화순에서 열린다.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지향적 백신 기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미국 국립보건원 백신 연구소 피터 쾨 책임연구원,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 산 루 교수 등 백신 전문가 8명이 초청됐다. 참석자들은 백신의 미래를 살펴보고 감염병 극복을 위한 연구, 산업, 정책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이 열리는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국

내 유일의 백신특구로, 화순전남대병원·녹십자 화순공장·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 의약연구소·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백신 기반시설이 있다. 구중곤 화순군수는 "국내외 물론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참가해 화순 백신산업특구의 잠재력을 드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화순국제백신포럼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질병관리본부·녹십자·전남도·화순군이 후원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KFSD 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연금사업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보따리는 농어촌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축·임대주택
• 매매, 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 받아 임대
청년창업농, 2030세대, 귀농인 농지지원
• 청년창업농의 빠른 영농 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금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임대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문의 전화 **1577-7770**